

기독교인의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 관계

서용일 (아신대)

본 논문에서 Kirkpatrick(1992)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애착특성을 ‘하나님애착(attachment to God)’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을 개인의 애착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Kirkpatrick의 성인 애착 가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학적, 성경적 해석에서 볼 때 왜곡된 하나님 애착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애착)은 구속의 은혜와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Roberts의 학설을 인용하여 “애착행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로 본 것은 하나님 애착의 옳바른 행위로 보인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애착이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Kirkpatrick의 유아 애착특성이 기독교인의 종교행동과 다분히 일치한다고 본 것은 심리적 접근이지 성경적 접근이라 볼 수 없다. 특히 불안형의 성인이 애착 결핍의 행동으로서 방언의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인간 발달 행동적 심리 접근 방법으로서 성경의 초자연적 역사와 성경적 진리를 훼손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기도와 방언, 예배행위와 같은 신앙적 행동을 불안정한 사람이 애착의 대체 수단으로 하나님을 근접추구 개념으로 일치시킨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위한 참된 경건을 오도하는 잘못된 심리분석 방식으로 사려 된다.

이와 관련하여 Kirkpatrick은 하나님 애착을 성경 신학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Schleiermacher이론과 실존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에 근거를 둔 Kaufman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향숙 박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Miner(2007)의 이론을 인용하여 Kirkpatrick의 하나님애착 이론이 인지사회모델을 환원주의로 바꾼 결과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본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Kirkpatrick은 방언(glossolalia)을 영아의 웅얼이나 유아적인 언어의 형태와 유사하게 들린다는 관찰연구를 근거로 방언을 할 때 머리 흔들기나 팔을 드는 행동 역시 영아의 애착대상을 향한 근접추구 행동과 유사하다고 보고, 불안형의 성인이 회피형이나 안정형보다 방언의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한 것과 방언을 애착결핍으로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개인이 애착욕구를 위해 하나님과 더 근접하기를 원하는 접근행동으로 것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자 심리학적인 사려된다.

또한, 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Kirkpatrick의 애착 이론은 애착대상의 상실로 인하여 이차적인 애착대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차적인 애착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영생

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애착대상으로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위기에 빠진 자들을 선택의 은혜를 통하여 먼저 찾아 오셔서 부르시고 회개와 영접, 용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어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다.

Kirkpatrick이 하나님 애착의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은 부모에게 안전애착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자녀들이 애착대체 인물을 찾으며, 부모 죽음이나 질병, 이혼과 같은 사건으로 불안정애착으로 전환 되었을 때, 제 2의 애착 대체인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왔다 욕구 충족이 안됨 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본 것은 불안지수 때문 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애착이론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심과 구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성경적 접근으로 사려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를 심리적인 측면으로만 조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는 인본적이며 심리학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또한 Kirkpatrick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은 심리학적 환원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개인이 만든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관계가 아닌 심리적 관계라는 이향숙 박사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Kirkpatrick의 ‘안정 하나님애착’ 개념에서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학적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려 된다.

본 논문에서 이 향숙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불안정한 하나님애착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으로서 내적 작동모델 재고(再考)와 재(再)양육 경험을 위한 돌봄을 통해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상담자로서 영적 이해 및 안전기지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과 정서적 영적 돌봄을 통하여 영적 부모의 역할과 재 양육 역할을 통한 신앙성장을 촉진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목표로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본다.

또한, 애착인물과의 분리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올바른 보상관계로서 회심과 구원의 훈련 양육과정을 통하여 확고한 하나님과의 관계형성과 지속적 영장성장을 위한 돌봄을 강조한 것은 성경적 상담의 바른 제안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기독교 상담가로서 불안정유형의 내담자가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 대상으로 새로운 영적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영적 훈련과 돌봄을 통하여 잘못된 하나님애착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데서 성경적 상담차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